

보물 품은 장흥 겨울 바다... 굴·매생이·김



장흥은 사시사철 풍부한 먹거리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에는 제철 별미로 이름난 굴, 매생이, 김을 맛볼 수 있어 장흥의 겨울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

장흥 굴은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장흥군 용산면 남포마을에서 활발하게 채취한다. 남포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파은 자연산 굴을 장작불에 구워먹을 수 있어 입소문이 자자하게 난 곳이다. 이곳에서 채취한 굴은 향긋한 바다 내음을 자랑하며 감칠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나 굴은 '바다의 유유'라고 불릴 만큼 풍성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미식과 동시에 보양식으로도 즐길 수 있다. 굴에는 아연이 풍부해 활력 증진에 좋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굴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겨

굴, 향긋한 바다 내음에 감칠맛 뛰어난 보양식 매생이, 부드러운 식감·깊은 향 전국 최고 품질 무산김, 전국 최초 '산' 사용안해 무공해 청정김

울 별미로는 매생이를 꼽을 수 있다.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에서 수확되는 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또한 매생이는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숙취 및 스트레스 해소, 성인병 및 골다공증 예방, 아이들의 성장 촉진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생굴·소고기와의 궁합도 뛰어나 함께 요리해 먹으면 제철에 먹을 수 있는 탁월한 보양식이 된다. 매생이로는 국·탕·전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

굴·매생이와 더불어 겨울에 진가를 발휘하는 음식이 있다. 바로 장흥 무산김이다. 장흥군 무산김은 '착한 김'으로 알려지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잡았다.

무산김은 전국 최초로 김 양식 시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자연광과 해풍에 노출시켜 생산해내는 무공해 청정김이다.

무산김의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 장흥은 각종 어패류와 낙지 생산량이 늘어나 바다 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쾌거를 이뤘다. 바다의 오

염도를 가능하는 척도이자 '바다의 숲'이라 불리는 잘피 군락지도 넓어지며 각종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이 마련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듯 무산김은 자연 친화적인 생산 방식으로 인해 김 고유의 식감과 향이 깊은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 시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찬 및 아이들의 건강식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며, 비타민B12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및 신경 작용 증진에도 효과가 좋다.

또한 식물성 식재료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축에 속해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굴·매생이·김을 통해 장흥의 겨울을 느껴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진 오늘날, 장흥 겨울 별미를 맛보면서 장흥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언택트 시대에 알맞은 관광법이다. '대한민국 흥이 시작되는 곳, 장흥'의 '맛의 흥'이 겨울 바다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으니 마음껏 맛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친환경 농업인 대학 신입생 모집 22일까지 청년창업 등 3개 과정 120명 선발

진도군이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친환경 농업인 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농업인 120명을 선발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까지 9개월 동안 ▲친환경 농업 반(60명) ▲청년 창업반(40명) ▲국화산업 연구회반(30명) 등 전문 이론 교육과 우수 농가 벤치마킹, 실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입학 자격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예비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교육지원팀(540-6123)으로 하면 된다.

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농업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농업인 대학을 1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총 93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들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연구모임, 역량강화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인 대학에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참여해 농업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완도군 "음·면장이 떨 테니 이번 설은 모두 멈춰주세요"

부모님 안부 살펴드리는 '사랑의 콜센터' 인기

완도군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모두 멈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두 멈춤' 운동은 총 2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데, 그중 특히 '사랑의 콜센터'가 호응이 좋다.

'사랑의 콜센터'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운영되며,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 향우들이 읍면에 '부모님 안부 살펴보기'를 신청하면 읍면장이 직접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고, 설 선물 전달 및 영상통화 지원과 자녀 세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운영 초반에는 신청자가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멈춤'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향우들이 늘면서 요즘은 읍면장이 틈날 때마다 마을에 세배를 하러 다니느라 바쁠 정도이다.

특히 '부모님 안부 살펴보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읍면 직원들이 귀성·역귀성객을 파악하러 각 가정을 방문할 시 영상통화 지원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2월 2일 기준, 설 명절 귀성·역귀성 자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군민과 향우는 총 2,794명이다.

이번 설에 고향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서울의 한 향우는 "자식들을 볼 수 있는 설을 기다리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부모님 안부를 살펴주시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약산면의 한 어르신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좀 허전했는데, 이렇게 면장이랑 직원들이 와서 세배를 하고 말벗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해남군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안전하고 편안한 설맞이를 위한 분야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편사항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총괄반을 비롯해 재난·안전 대책, 가족질병, 산불, 교통 및 청소, 보건, 급수공급 등 7개 분야로 편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귀성·역귀성 자제 등 명절 잠시 멈춤 캠페인과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역관리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군청 앞 군민광장 지하주차장은 연휴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기동취재본부

강진군, 도시재생 및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

15개 주요 사업 추진상황 및 올해 추진계획 보고

강진군은 지난 1일 이상심 부군수 주재로 도시재생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단, 생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함께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진을 동성리 일원에 국비 93억 원 포함 총 15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강

진읍시장 부근 어울림센터와 도시재생 인정사업 총사업비 75억원 규모의 서성리 맘편한센터 조성 등 각종 시설 공사 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군동면·마량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국비 49억 원 포함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생활력플러스사업은 푸소(FU-SO)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또, 강진종합운동장 내에 푸소센터 건립을 통해 푸소산업의 거점 및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